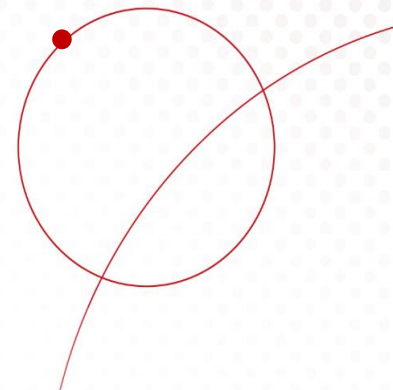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2026.09

BNK FINANCIAL GROUP
Value-up Plan 2.0

BNK

BNK는 지역 산업의 혁신을 동력으로 기초체력(ROE)을 다지고 진정성 있는 주주환원을 실현하겠습니다.



- COE를 상회하는 본원적 수익성 제고
 - ✓ 부울경 지역 산업금융 확대 및 자본시장 등 비이자 수익 포트폴리오 강화
 - ✓ 효율적 비용 구조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추진
 - ✓ 우량 산업, 상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으로 건전성 강화



- 안정적 자본적정성 및 튼튼한 자본 체력
 - ✓ 규제 비율 및 자산 성장을 감안한 안정적 자본적정성 지속 유지
 - ✓ RWA 성장률 연 4% 이내 관리 및 RoRWA기반의 자본 재배치 확대
 - ✓ 목표 CET1(12.5%) 초과 자본은 주주환원 재원으로 활용



-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주주환원
 - ✓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추진
(배당성향 25% ↑, 총배당액 전년대비 10% ↑)
 - ✓ 예측 가능한 분기 균등 배당 지향
 - ✓ 배당 후 남는 여력은 연간 주주환원을 목표 충족을 위한 자사주 매입/소각에 투입

이사회 중심의 「독립적 거버넌스」 강화 및 「경영진 성과평가」 연계 확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지속가능 성장 구조' 강화

Value-up 2.0

Value-up 1.0 (24년 공시)

주주환원(분배)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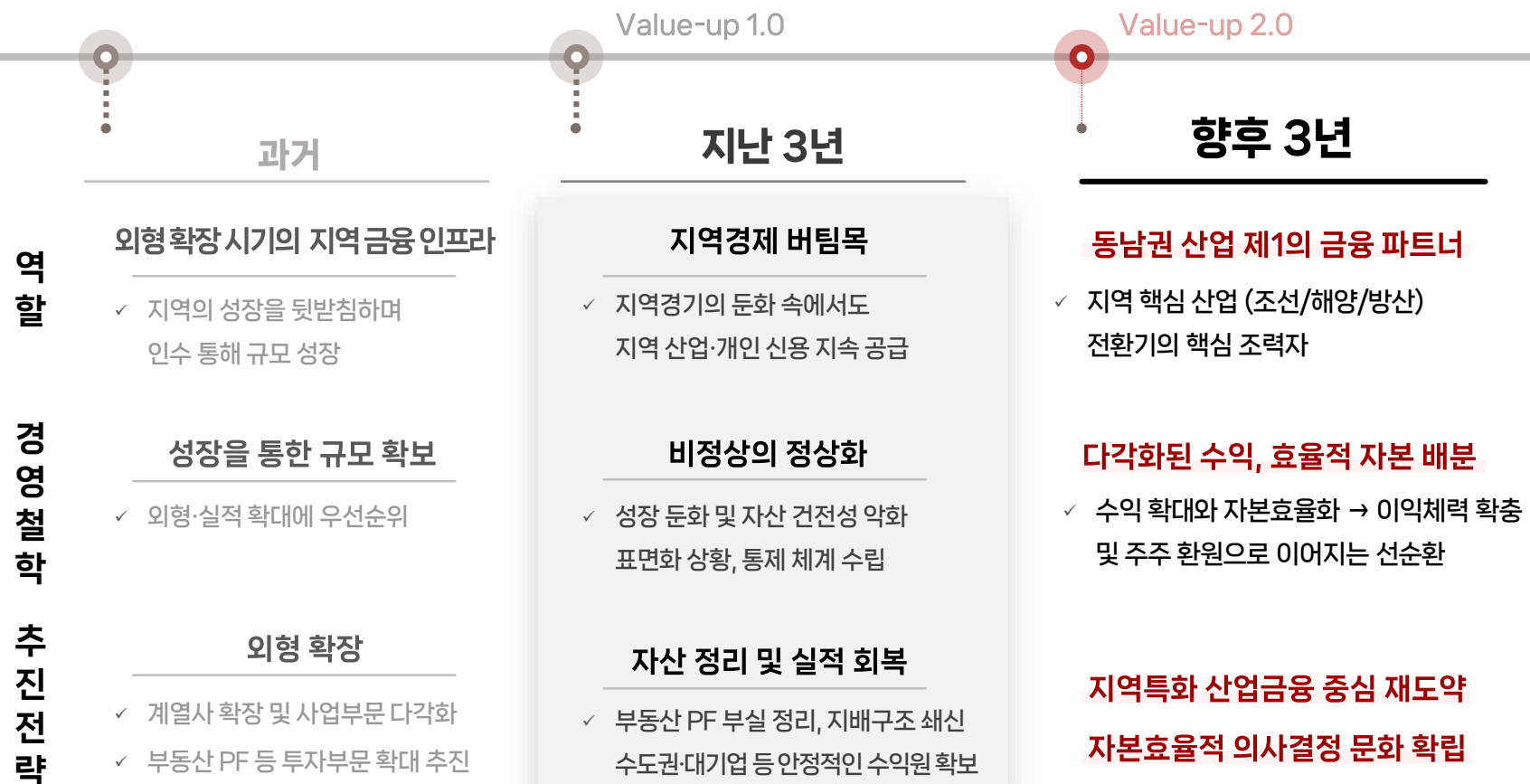
- ROE **10%**
 - ✓ 중장기 목표 수익률 10% 이상
 - ✓ 수치 목표 제시에 집중
- CET1 ratio **12.0~12.5%**
 - ✓ 최소 규제 가이드라인 상회 수준 유지
- 주주환원율 **50%**
 - ✓ '27년까지 50% 점진적 확대 목표
 - ✓ 자사주 매입/소각 정책 초기 도입

수익창출 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중심

- 지속가능한 ROE **10.5%⁺**
 - ✓ 부울경 지역 산업금융 확대 및 자본시장 등 비이자 수익 포트폴리오 강화
 - ✓ 효율적 비용 구조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추진
- CET1 ratio **12.5%⁺**
 - ✓ 규제 비율 및 자산 성장을 감안한 안정적 자본적정성 지속 유지
 - ✓ RWA 성장률 연 4% 이내 관리 및 RoRWA 기반의 자본재배치
- 주주환원율 **50%⁺**
 - ✓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충족 추진
 - ✓ 예측 가능한 분기 균등 배당 지향
 - ✓ 배당 후 남는 여력은 연간 주주환원율 목표 충족을 위한 자사주 매입/소각에 투입

타사는 주주환원 확대에 집중, BNK는 「ROE를 높이는 구조」 강화 추진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60년, 이제 동남권 산업의 전환기를 이끄는 금융 파트너



목 차

CONTENTS

Part

01

이행 현황 및 성과

Par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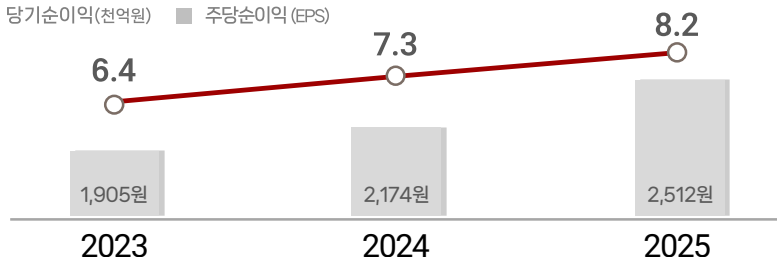
Value-up 2.0

지난 2년 간 **시장의 재평가**와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함께 진행

성 과 1. 당기순이익 및 주당순이익 (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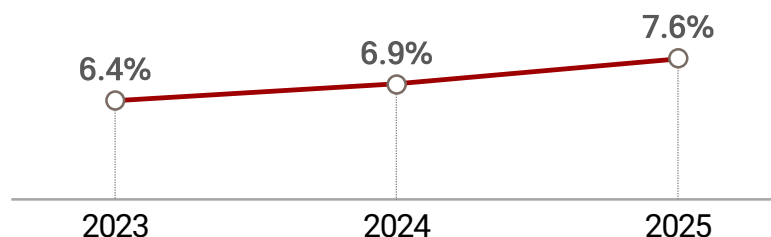
연평균 **13%** 지속 성장

— 당기순이익(천억원) ■ 주당순이익 (EP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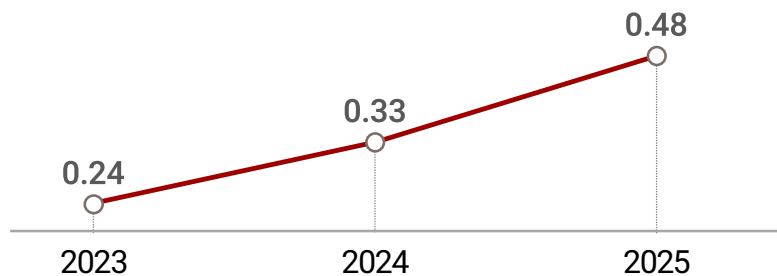
성 과 2. ROE

6.4% → **7.6%**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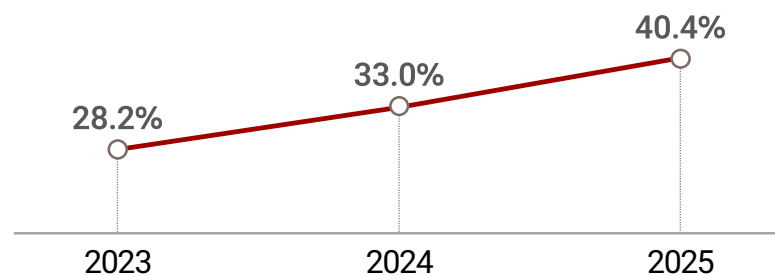
성 과 3. PBR

0.24배 → **0.48배**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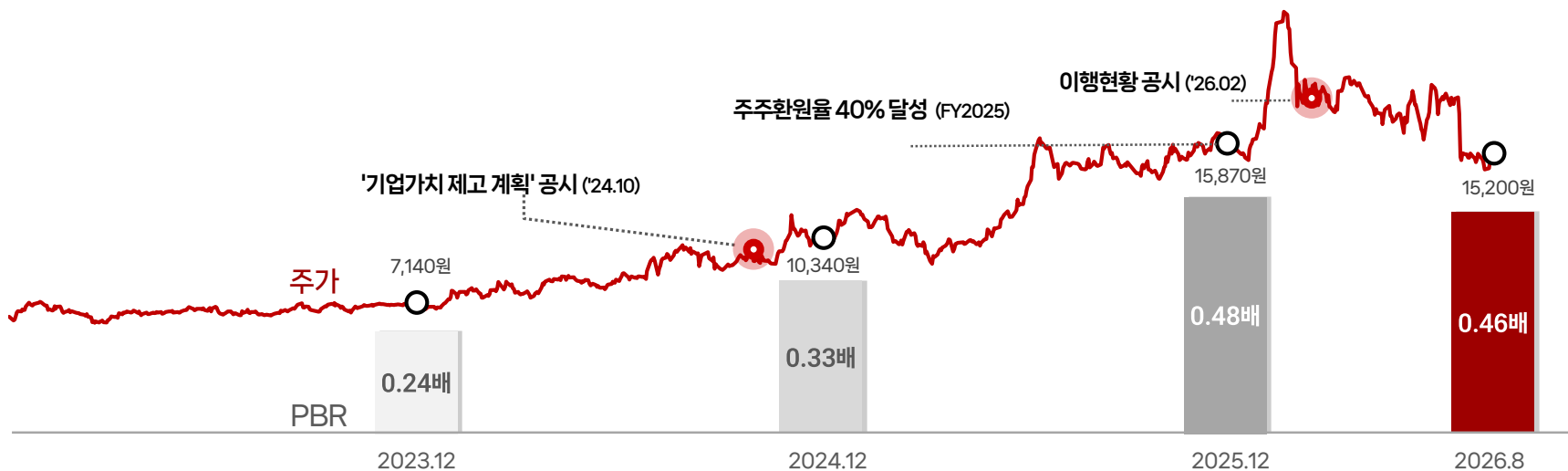


성 과 4. 주주환원

28% → **40%**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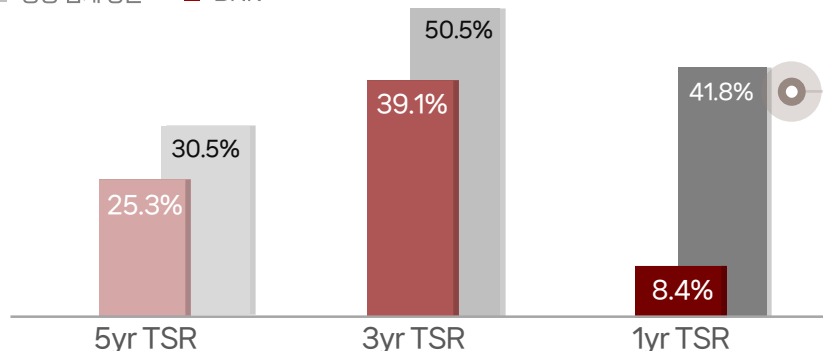


밸류업 이행과 함께 시장의 재평가 본격적으로 시작



TSR (2026년 7월말 기준)

■ 동종 업계 평균 ■ B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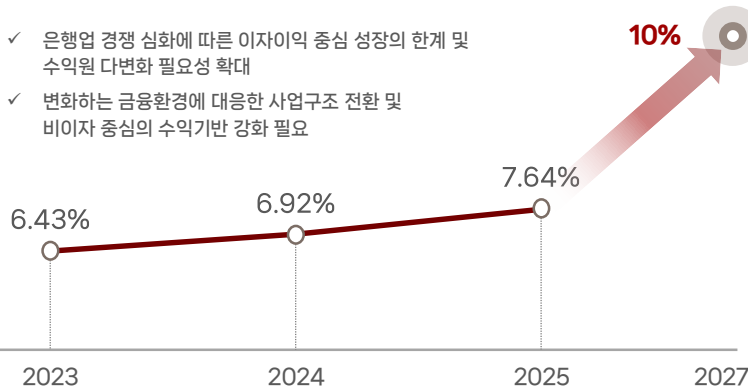
✓ 총주주수익률(TSR) 상승 기조이나, 동종 업계 평균 대비, 개선 속도는 낮음

주) TSR : 해당시점의 과거 1/3/5개년 총주주수익률 (주가상승 및 배당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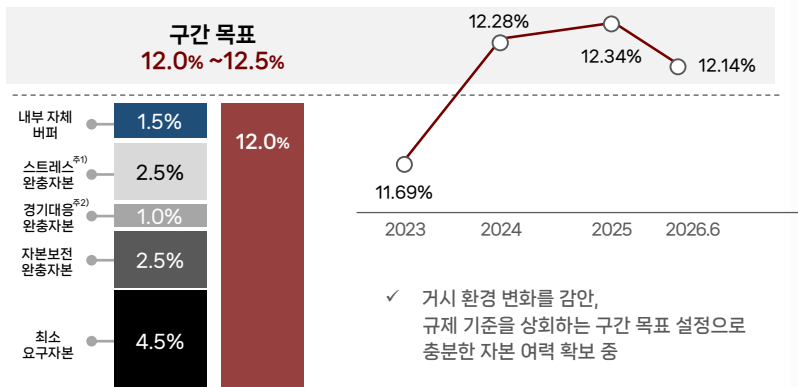
Value-up 1.0 목표 점검

ROE : 10% 이상

- ✓ 은행업 경쟁 심화에 따른 이자이익 중심 성장의 한계 및 수익원 다변화 필요성 확대
- ✓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한 사업구조 전환 및 비이자 중심의 수익기반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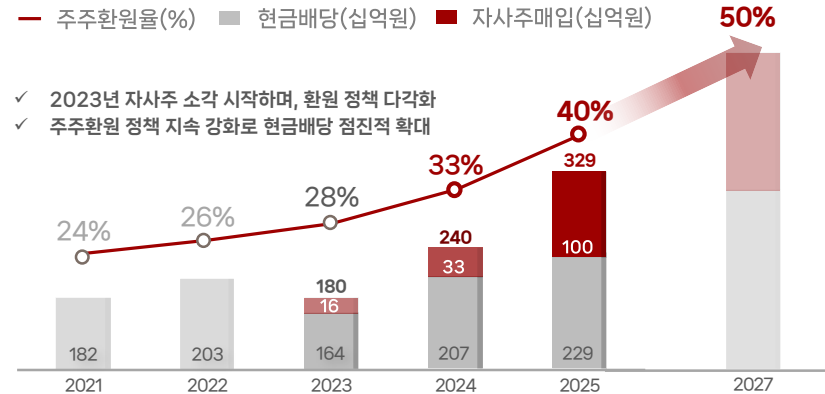
CET1비율 : 12.5% 지향 (최소 12.0%)



주주환원율 : 50%

— 주주환원율(%) ■ 현금배당(십억원) ■ 자사주매입(십억원)

- ✓ 2023년 자사주 소각 시작하며, 환원 정책 다각화
- ✓ 주주환원 정책 지속 강화로 현금배당 점진적 확대



Value-up 1.0 실행목표의 일관된 이행

- ✓ 주주환원 확대 및 CET1비율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

ROE 개선 정제에 따른 수익창출 구조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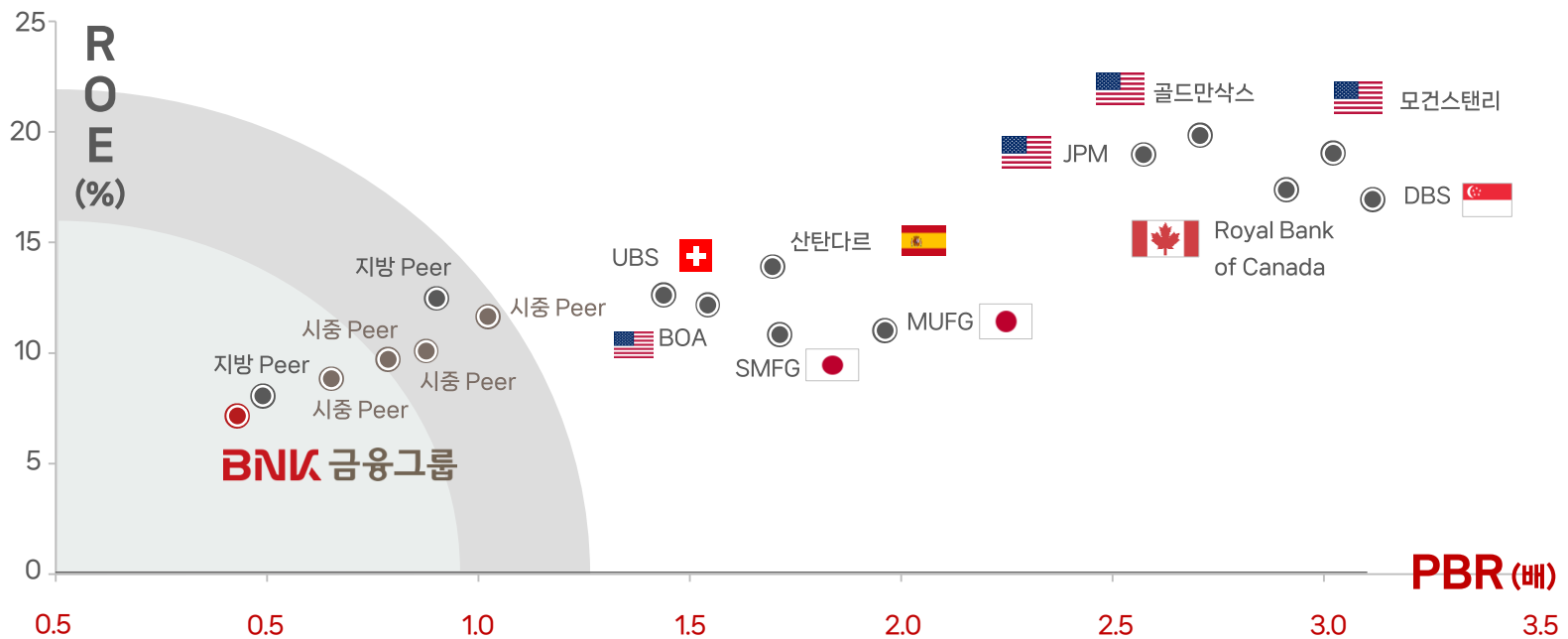
- ✓ 주요 실행목표 이행에도 불구하고 ROE 개선은 답보 상태
- ✓ 수익성 정제에 따라 TSR도 유의미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
→ 수익창출 구조의 개선을 통한 중장기적 그룹 체질 강화가 필요

주1) 스트레스 완충자본(max 2.5%) 반영 기준 : 최대 2.5%p 추가 자본 적립 의무 규제(감독원 상향식 위기상황분석의 보통주자본비율 하락폭에 따라 결정)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규제 부과 상한을 가정하여 보수적으로 목표 설정

주2) 경기대응 완충자본 : 현재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1%를 반영. 단, 동 규제의 법적 부과 상한은 최대 2.5%이므로, 향후 거시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당국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계획

국내외 선도사 비교 시, ROE 개선에 따른 재평가 여력 확인

국내/해외 Peer ROE vs PBR



국내외 선도사와의
밸류에이션 간극 존재

현재 BNK의 기업가치는
개선의 여력이 존재함을 의미

선도사를 향한 추격을
본격화해야 하는 시점

목 차

CONTENTS

Part
01

이행 현황 및 성과

Part
02

Value-up 2.0

Value-up 2.0 기업가치 제고 방안 요약

기 존

수익원 강 화

- 해양금융/산업금융의 목표를 발굴했으나, '여신 중심' 수익원 한정

건전성 강 화

- 부동산 PF 및 거액 부실 발생 등으로 CCR 급증했으나, 점진적으로 정상화 중
(그룹 CCR '23년 0.84% → '24년 0.77% → '25년.1Q 0.93%
→ '25년 0.64% → '26년.2Q 0.61%로 개선 중)

비 용 효율화

- 당기순이익 및 ROE 개선에도 불구, CIR도 동반 상승
(그룹 CIR 2023년 45.7% → 2025년 50.1%)

자 본 효율화

- 자본효율성 중요도 인지 / RoRWA 계열사별 산출 불구, 실제 활용은 제한적

향 후

- ✓ 기존 해양금융/산업금융 목표 확장 : 부울경 지역 산업 내 금융 수요 다각화, '비이자 수익' 확대
(예. 증권 구조화, 캐피탈 리스 수익 확대 등)
- ✓ 본원적 자산건전성 개선을 위해 우량 산업·상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
(기존 부실 상각 마무리 단계 진입)
- ✓ 효율적인 비용 구조 수립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 추진
- ✓ 高 자본효율 사업 중심의 자본 배분 체계 수립/운영을 통한 RoRWA 개선

BNK Value-up 2.0

01 목표

1

2029년 ROE 10.5%+ 달성

02 핵심 전략

사업 펀더멘털 강화

2

수익원 강화

부울경 내
산업금융
신규
수익원
다각화

3

건전성 강화

자산 포트폴리오
고도화

4

비용 효율화

중복/불필요 비용
슬림화

자본 효율성 강화

5

자본배분
구조 전환高 RoRWA
사업 중심 자본배분

6

주주환원
확대

밸류업 원칙에 기반

03 추진 기반

7

거버넌스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독립(사외)이사 전문성 강화 및 승계 체계 재정비)

8

성과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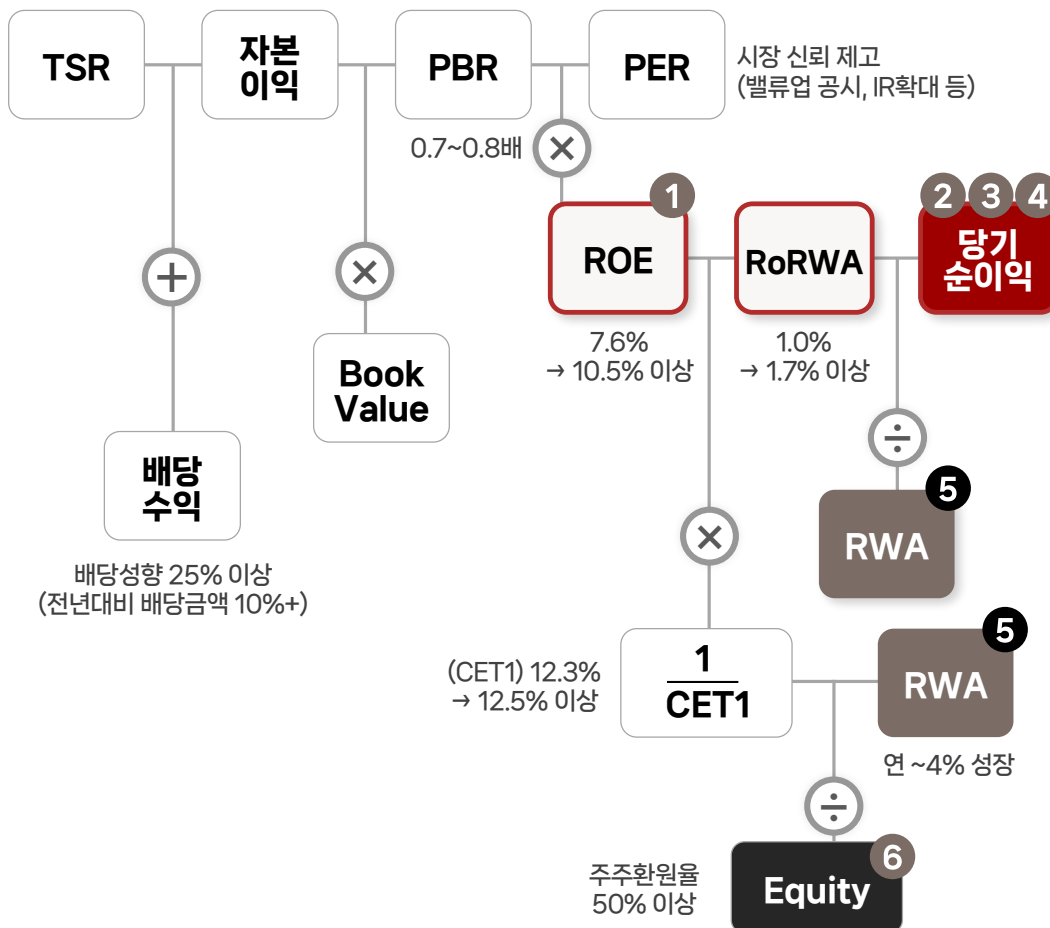
그룹 핵심 전략 및 지표 (ROE, RoRWA, TSR) 중심의 성과평가 재편

9

IR

시장 신뢰 제고 위한 정례 소통 강화 및 Capital Markets Day 연 1회 개최

BNK Value-up 2.0 통한 TSR 제고방안



당기순이익 (사업 펀더멘털 강화)

- 부울경 지역 내 산업금융 강화
- 신규 수익원 다각화
- 자산포트폴리오 고도화를 통한 건전성 강화
-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外 불필요 비용 효율화

RWA 리밸런싱 (자본효율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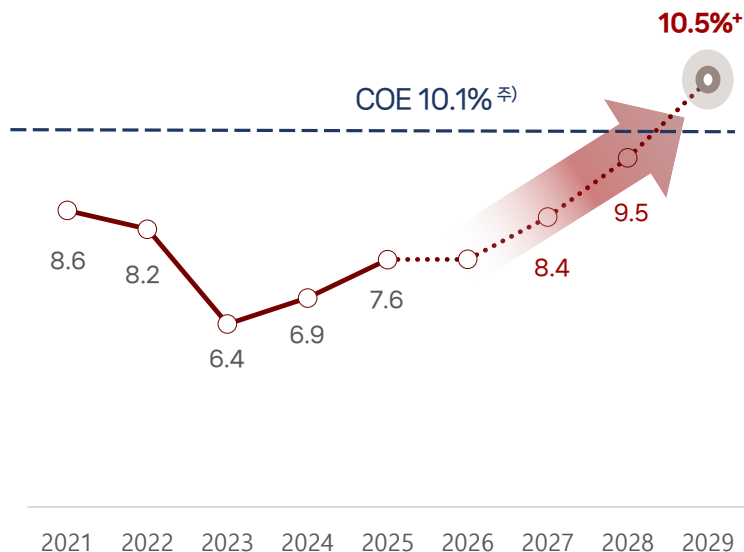
- 高 RoRWA 사업 중심 자본배분
- 전사 사업별 RoRWA 분석
- 低 RoRWA 사업의 자본 회수/재배치

Equity 성장 제한 (자본효율성 강화)

- 주주가치 확대를 위한 자본배분
- 주주환원을 50% 이상으로 상향을 통한 효율적 Equity 구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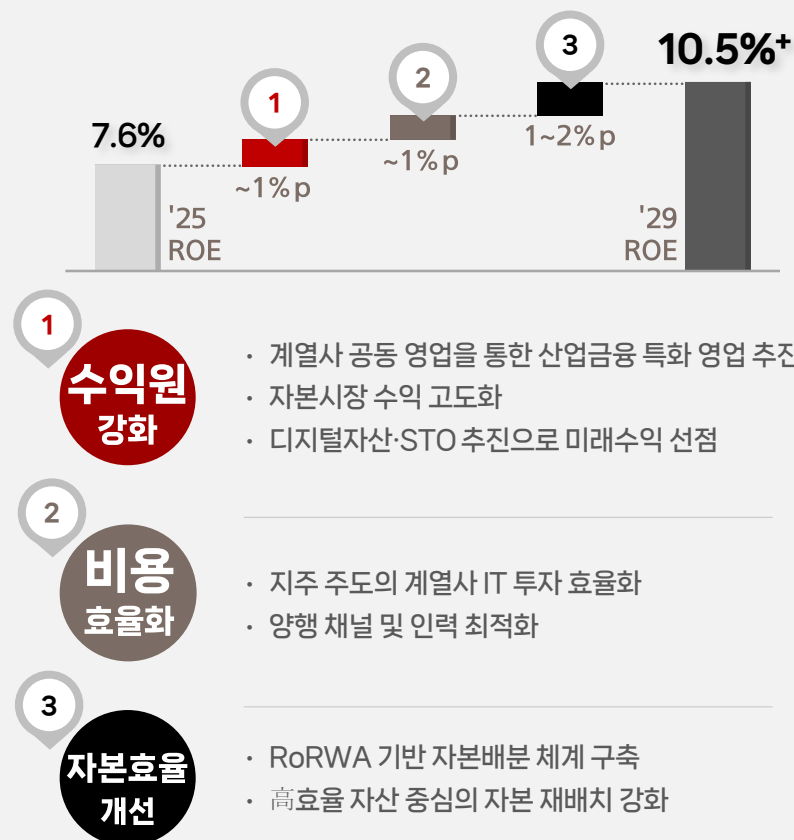
자본비용(COE)을 상회하는 ROE 10.5%+를 '29년까지 달성

✓ ROE 추이 및 목표



✓ 2029년까지 ROE 10.5%+ 달성으로 자본비용 상회, 주주의 지속 가능한 가치창출 단계로 전환

✓ '29년 목표 달성 방안 Breakdown



주) CAPM(=Rf + β × MRP)으로 산출: ① 무위험수익률(Rf) 4.2%(국고채 10년물, '26.6월) ② β 0.83(BNK 최근 10년 adjusted 베타평균)

③ 시장위험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MRP) 7.1%(Damodaran 정규화 한국 ERP 5.1% + 통상 가산 2%p). 국내 증권사 추정치 범위(7.4~10.2%)의 상단으로 보수적 기준 적용

부울경은 쇠퇴가 아닌 **변화의 시기**로, 기존 산업 사이클 전환과 신사업 부상에 따른 **금융 수요 확대** 예상

기 존 산 업 ↓ 신 규 산 업	변화 동인	기업 변화	산업 예시	금융 니즈 변화
	친환경 규제 강화	IMO/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신조 발주와 선박 및 설비 개조(Retrofit) 투자 확대	해운, 조선, MRO	여신 중심에서 자본시장형 조달로 니즈 다변화
	공급망 재편 및 수출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수출 증가로 협력사 생산능력 증설과 설비 투자 확대	조선, 방산, 우주항공, 원전	산업 내 협력사 생태계의 금융 수요 확산
	산업 고도화 및 세대교체	스마트공장 및 디지털 전환 투자와 함께 사업재편 수요 증가	MRO, 자동차 부품 등	설비 투자 등 법인 대상 수요 증대
	변화 동인	기업 변화	산업 예시	금융 니즈 변화
	AI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AI 수요 증가와 수도권 전력 및 부지 부족으로 데이터센터 부울경 분산	데이터센터	신규 사업군 유입으로 장기/대형 금융 수요 확대
신 규 산 업	국가 인프라 및 에너지 투자 확대	신재생/항만/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장기 프로젝트 투자 확대	항만, 에너지	대형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장기 자본 시장 니즈 확대
	국가 전략 산업 육성	SMR/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 공동투자 및 장기 프로젝트 본격화	SMR	단독 취급에서 복합/ 다자간 금융 구조로 전환

산업금융·자본시장·디지털자산 3대 축에서 신규 수익 기회 구체화 → 그룹 수익구조 다각화

✓ 기존 비즈니스 진화

산업금융 특화 그룹 공동 영업체계

▪ 대형 고객 복합 금융

- ✓ 부울경 내 산업 금융 변화 포착, 계열사 개별 대응이 아닌 지주 주도 종합금융 제공
(예. 여신 중심이 아닌 구조화 등 확장)

▪ 산업 인프라 금융

- ✓ 부동산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항만·데이터센터 등 성장 산업 기반 금융으로 재편

▪ 중소기업 공급망 금융

- ✓ 앵커기업 생태계 내 협력사를 초기 자금거래 고객으로 유입 후 장기 고객으로 전환

▪ 특화 개인금융

- ✓ 지역 기업 오너 및 임직원 중심으로의 생애주기형 모델 구축

✓ 신규 수익원 다각화

자본시장 수익 고도화

▪ 운용 효율성 제고

- ✓ 재원의 운용 효율을 개선해 능동적 수익 창출 노력 확대

▪ 대고객 비즈니스 강화

- ✓ 고객 기반 거래를 체계화해 자본시장 수익의 반복성/안정성 제고

디지털자산 기반 미래 수익 포지셔닝

▪ 시장 형성 초기 참여

- ✓ 국내 디지털자산 인프라 재편 초기 국면에서, 선점 가능한 영역 참여 조기 검토

▪ 유연한 단계적 확장

- ✓ 소규모 학습형 접근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며, 시장 성숙도에 따라 사업 범위 점진적 조정

실행 기반

그룹 거버넌스 정비

- ✓ 공동 영업 실행력 확보 위한 지주-계열사 간 역할과 의사결정 체계 정비

성과 연계 체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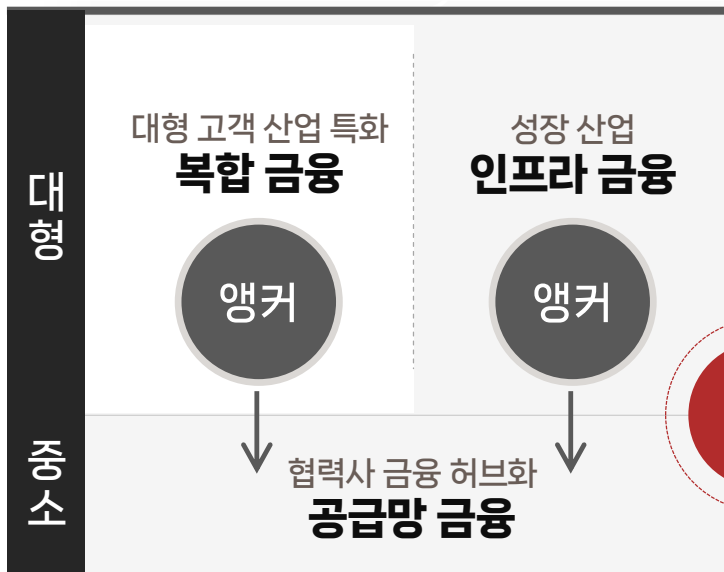
- ✓ 신규 수익 사업의 성과가 조직·평가체계에 반영되도록 연계

기존 부울경 지역금융 역할 수행하며 확보한 고객 및 산업 전문성을 활용, 다각화되는 고객금융 수요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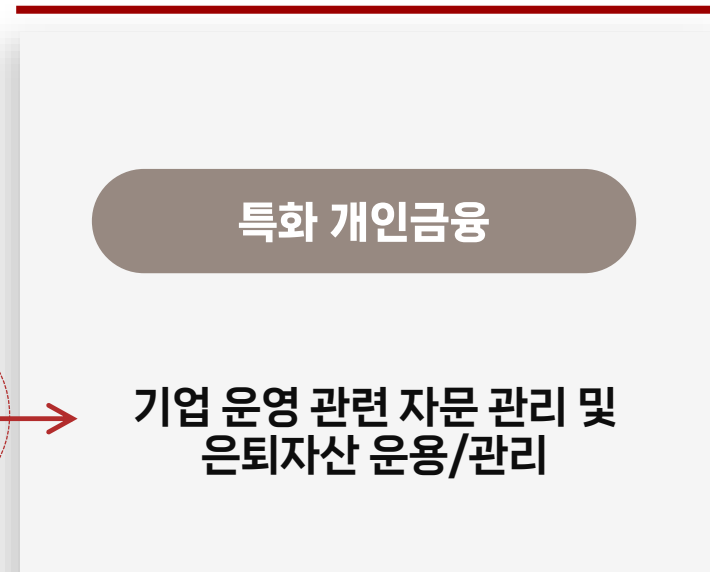
	대형 고객 복합금융	산업 인프라금융	중소기업 공급망금융
해당 산업 (부울경 내 산업 규모)	해운 (~17조원)	항만 (~9조원)	MRO (~13조원)
	조선 (~46조원)	데이터 센터 (~2조원)	조선 (~24조원)
	원전 (~14조원)	에너지 (~6조원)	우주항공 (~8조원)
비즈니스 확보방안	그룹 공동 산업특화 조직 기반 종합 금융 제공	인프라 PF 및 운영금융 결합	공급망 중심 금융 및 리스 확대
BNK 진입우위	- 오랜 거래 기반, 산업 이해 축적한 핵심 관계 사업 - 해양 금융 Track Record 보유	PF 역량 활용, 신규 성장 프로젝트 참여	- 부산 토착 기업 밀착 강점 보유 - 직접 진입 어려운 첨단산업 → 협력사 생태계로 진입
변화 방향성	산업 전문성 기반 금융 니즈 선제적 대응 기존 수주 단계 보증 중심 → 건조/인도, 친환경 전환 니즈까지 밸류체인 확대 계열사별 전문성(리스/구조화 등) 활용, 고객 당 수익 확대	정책에 따른 부울경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주거/산업 PF에서 산업 인프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 딜소싱에서 운영자금까지 밸류체인 전반 수수료 수익 확보	개별 협력사 금융에서 앵커기업 기반 공급망금융으로 전환 첨단 클러스터 형성, 협력사 수요 증가 기업 성장 단계별 금융 패키지 구축 (공급망 및 전환금융 등)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 고객 기반** 을 활용한 **특화 개인금융 강화**

✓ 산업금융 '기업'



✓ 개인금융 '법인오너'



- 부울경 내 기업고객 기반은 이미 확보했으며, **기업 과제 통해 추가 확대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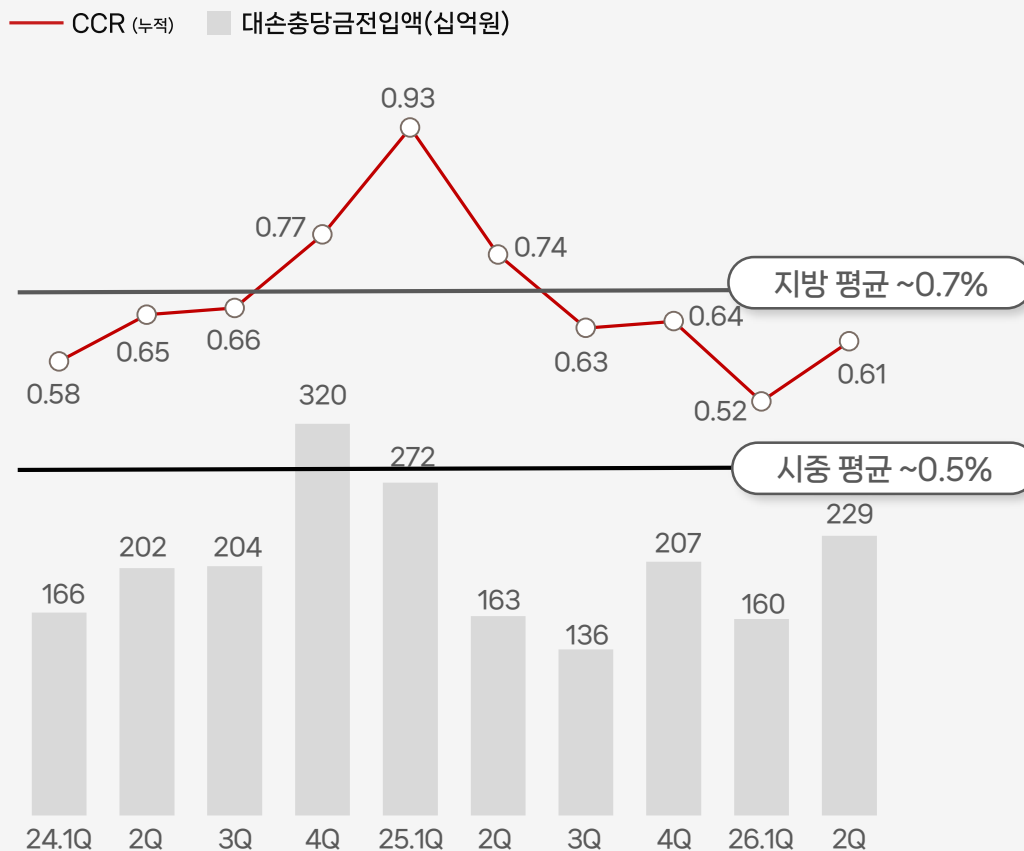
- ✓ 현재 강소기업을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RM 개인역량에 의존한 관계 유지·영업 실시 중

- 법인→개인고객화를 뒷받침할 **사업모델 발굴**

- ✓ 기존 기업 금융 고객 거래 관계 활용, 부울경 지역의 기업 오너 당면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이해/대응

시중금융그룹 수준의 건전성 관리 강화

✓ 일시적 CCR 상승 후 정상화 과정



본원적 자산 질 개선과 상시 모니터링으로 건전성 개선

1. 기존 자산

- ✓ 기존 부실(부동산 PF 등)에 대한 충당금 적립 마무리 단계로, 향후 추가 부실 충당금 부담 완화 국면

2. 신규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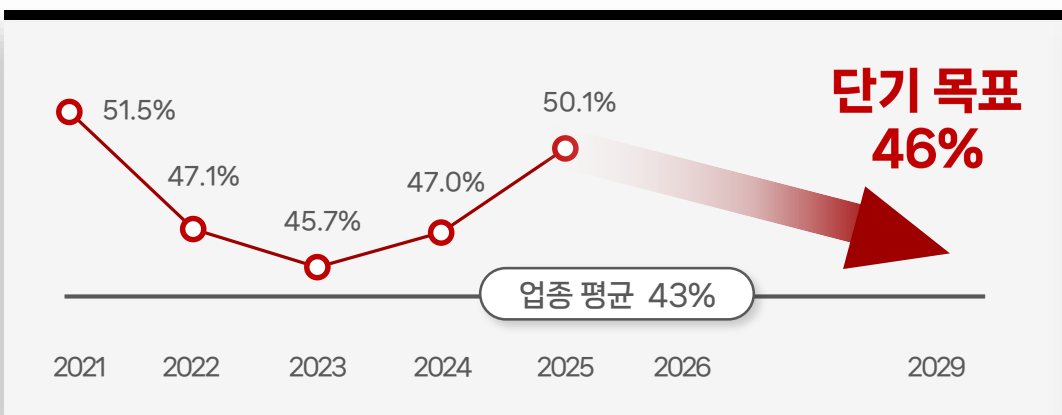
- ✓ 신규 취급 시 건전성 중심의 우량 산업·상품·고객 확대
- ✓ PF 취급 시 선순위 중심 구조로 전환 및 부동산 → 산업 인프라로 다각화

3. 대응 체계

- ✓ 건전성 모니터링 고도화, 부실 징후 포착 시 담보 및 금리 조정 등 선제 대응 체계 구축

동종그룹 대비 **비용 효율성** 개선 여지를 인지하고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 확립 노력

✓ CIR 추이 및 목표



✓ 그룹차원 우선 과제로 인식하여 추진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노후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차세대 전환비용 발생 (단기 CIR 부담 요인)
- 프로세스 자동화 혁신을 통한 그룹 생산성 증대
- 고객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효율성 확대
- 선제적 AI 시대 전환 대비를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

조직/자원 운영 질적 효율화

- 그룹 시너지 창출 기반으로 운영모델 정비
- 중복 기능·프로세스 표준화로 구조적 효율성 제고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는 지속하되, 불필요한 비용은 축소하여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 확립

명확한 원칙에 기반한 자본배분으로, 자본효율적 사업구조로의 전환

운영 방향

· 육성·축소 대상 사업을 명확히 구분

· 육성 사업에 대한 자본 확대 배분, 축소 사업에서 자본 회수·재배치

사업별 동일 기준으로 정교한 RoRWA 산출

- ✓ 전략적 의사결정의 단위인 계열사별 사업별 RoRWA 산출
- ✓ 산출 기준을 통일해, 계열사 간 사업 RoRWA 수준을 비교, 자본배분의 기초 자료로 활용

사업 우선순위화 & 고효율 사업 중심 배분

- ✓ 자본 추가 배분 or 회수 필요한 사업 판단하기 위한 '기준' 운영 (기준별 배점, 배분 대상 우선순위화)

수익성
RoRWA 기반

전략적합성
성장성, 경쟁우위,
규제적합성

리스크

실행력 확보 위한 거버넌스 수립

- ✓ '자본배분위원회' 운영을 통한 실행력 제고
 - 재무-리스크-전략 등 참여
 - 자본배분을 그룹 내 핵심 아젠다로 격상

연중 동적 자본 배분

- ✓ 일회적 배분이 아닌, 지속 조정 및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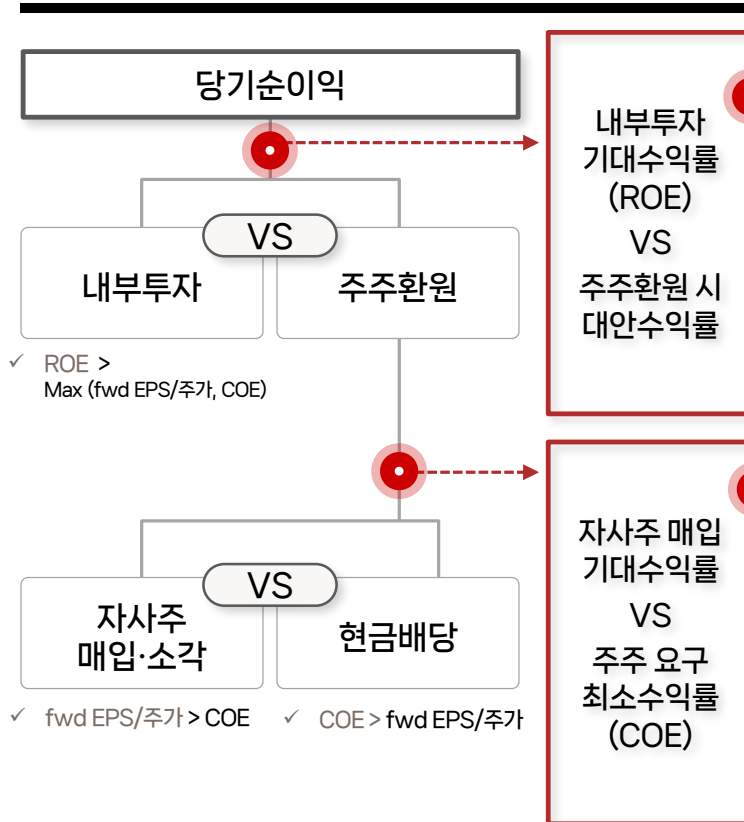
연간 전사 배분 수행

반기 전사 중간조정 (실적 반영 중간조정)

분기 계열사 자체적인 조정

명확한 원칙에 기반한 주주환원을 통해 주주환원을 '29년까지 50%+로 확대

주주환원 주요 흐름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원칙

원칙1

주주환원은 주주가치 제고 방향으로 진행

- 내부투자 vs 주주환원 시, 주주관점에서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 (단, 비슷한 수준일 경우 내부투자를 통해 미래 이익 확보)

원칙2

주주환원율은 '27년 50% 달성 후, 점진적 확대

- 안정적인 50% 주주환원율 유지 목표 (원칙 4 연계, CET1 비율 12.5% 이상 유지 시 50% 초과 환원 검토)

원칙3

유연한 주주환원 구성 조정

- fwd EPS/주가(자사주 매입 기대수익률)와 COE(자본비용) 비교하여, 주식수 감축 또는 현금배당 검토
- 노력형 고배당주(분리과세) 요건 충족하기 위한 배당성향 25% 이상, 전년대비 배당금액 10%+ 증가 목표

원칙4

안정적인 CET 1 비율 12.5% 이상 달성

- 적극적 주주환원 속 안정적인 자본적정성 개선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에 기반한 **주주환원**

타사와의 속도 경쟁 대신, BNK의 기업가치를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일관성에 기반한 주주환원 철학

- 단기적 수치 경쟁 지양,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 최우선
- 견고한 펀더멘털 구축 및 실적 변동성 최소화로 지속 가능한 환원 체력 확보
- 외부 금융 환경에도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되는 '약속'

직관적이고 투명한 주주환원 예측 구조

- 균등배당 : 분기배당 확대를 통한 안정적 배당 흐름 창출
- 직관적 가이드스 : 전년도 총배당액 대비 10%+ 제시
- 투자자가 당해 연도 주당배당금 및 환원 규모를 사전에 투명하게 예측할 수 있는 구조 정착

주주환원 약속의 진화

'24.10

Value-up
1.0

지향점 공표

- '27년까지 주주환원을 50% 달성 목표 공시
- 점진적 배당금 증가 기조 수립
-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도입

'26.02

이행현황

정책의 구체화

- 고배당주 요건 충족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혜택 제공)
- 총배당액 전년대비 10% 증가 및 배당성향 25% 초과 명문화
- 배당 후 남은 여력은 연간 주주환원을 목표 충족을 위한 자사주 매입/소각에 투입

'26.09

Value-up
2.0

원칙에 기반한 환원 로드맵

- 현 CET 1비율 12.2% 감안, 실현 불가능한 선언적 공약 지양
- 자본효율성 증대 및 자본비율 향상 최우선 집중
- CET 1비율 13% 초과 시, '주주환원을 60% 로드맵' 공시 약속

이사회 중심의 견제·균형 및 독립성 강화로 주주가치 제고

견제와 균형 강화

주주 추천 독립(사외)이사 제도 본격 도입
(‘26.3월 정기 주총)

개선 전

1명



개선 후

4명 · 과반 구성



- 주주 추천 독립(사외)이사를 과반으로 확대
- 주주 의사의 이사회 반영 강화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1차례만 연임 가능
이사회 의장	임기 1년, 1차례만 연임 가능 (이사회 균형 기능 강화)
독립(사외)이사	임기 최대 5년 제한 (연속 5년 초과 재임 불가)

이사회 독립성 제고

독립(사외)이사 (7명) + 사내이사 (1명)

의장



오명숙



김남걸



차병직



박근서



이남우



강승수



박혜진



빈대인

사내이사

- 이사회 의장을 독립(사외)이사로 선임, 이사회 내 독립(사외)이사 비율 87.5%(8명 중 7명)
-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제외 모든 위원회를 독립(사외)이사만으로 구성, 위원장 전원 독립(사외)이사

구분	위원장	위원 구성	독립(사외)이사 비율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오명숙	독립(사외)이사 전원	100%
감사위원회	박근서	김남걸, 차병직, 강승수	100%
리스크관리위원회	강승수	오명숙, 박근서, 이남우	100%
보수위원회	이남우	박근서, 강승수, 박혜진	100%
ESG위원회	박혜진	오명숙, 김남걸, 차병직	100%
내부통제위원회	차병직	오명숙, 김남걸, 박혜진	100%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	김남걸	이남우, 박혜진, 빈대인	75%

전문성·다양성 제고와 투명한 경영승계 절차로 지배구조 선진화 지속

이사회 다양성 · 전문성 제고

여성 독립(사외)이사 확대 ('26.3월 정기 주총)

개선 전

1명



개선 후

2명



- 여성 독립(사외)이사 확대를 통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제고
- BNK금융그룹 최초 여성 이사회 의장 선임
- Board Skill Matrix를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 및 집합적 적합성 확보



개선 계획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승계를 위한
'BNK 경영승계 절차 개선 프로젝트' 추진

후보군 관리

- 내부 후보군 육성·검증 및 In/Out 기준 고도화

자격 요건

- 지주 및 자회사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재설계

공정 경쟁

- 내·외부 후보자 간 공정성 제고

금융당국 '지배구조 선진화 TF' 결과 최우선 반영

경영진 보상을 **주주가치**와 정렬하여 **실행 동력**을 강화

자회사 성과관리체계와 자회사 경영진 평가 연계 강화를 통한 밸류업 실행력 제고

무엇을

- ✓ **경영진의 법인 책임경영**
 - 자회사의 정량적 실적 및 목표 달성 여부
- ✓ **그룹 관점의 성과평가 기여도 평가**
 - 그룹 공통 정성적 목표 달성 여부
- ✓ **전사적으로 주요 과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
 - 그룹/자회사 핵심 전략 과제 이행 실적 및 목표 달성 여부

어떻게

- ✓ **직관성**
 - 단일 평가 체계 하, 평가 기준 및 대상의 명확화
- ✓ **연계성**
 - 그룹 및 자회사 핵심 전략과의 반영
→ 기업 가치 제고에 기여
- ✓ **실행성**
 - 성과에 따른 실질적 영향력 강화 (보상 등)

기업가치 제고 실행과 보상 연계 강화

경영성과지표 평가

재무성과지표
(정량)

비재무성과지표
(정성)

ROE

사업별
RoRWA

TSR

전략과제 평가

그룹 전략 연계 과제

자회사 전략 과제

경영진·이사회 ↔ 시장 양방향 소통으로 시장 신뢰 강화

정례 소통 체계 강화 진행 중

투자자별 맞춤 정례적 소통 강화,
중장기 비전/성과 **선제적 공유**

국내 투자자 와 열린 소통 지속

- ✓ 경영진 주관 국내 기관투자자 NDR 확대
- ✓ Analyst Day('25), Investor Day('25),
개인주주 간담회('26 상반기) 등 주주 및 시장 관계자와 다양한 IR
활동 지속

외국인 투자자 기반 확대 추진

- ✓ 경영진 주관 및 이사회 동반 해외 NDR 실시로 경영 전략과
지배구조에 대한 시장 신뢰 강화
- ✓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 확대, NDR 지역 다변화로 투자자 기반 확대
(미국/유럽/아시아 등)

IR 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강화

- ✓ 정기 및 수시 IR Letter 발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편의성 강화
위한 영문 자료 및 영어 동시통역 제공
- ✓ 경영실적 발표회 영문 스크립트 등재, 홈페이지 전면 개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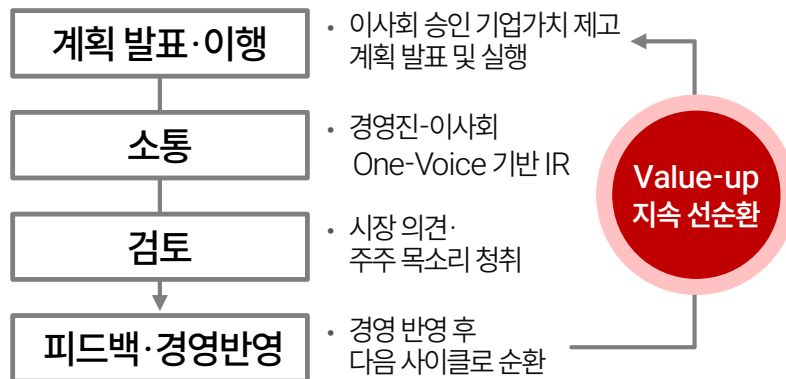
경영진·이사회 주관 Capital Markets Day 개최

시장의 의견을 경영 및 기업가치 제고 계획 실행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소통 체계 구축**

주주 및 주치자

- ✓ 주주 라운드테이블을 주주 및 시장 관계자와의 핵심 소통
플랫폼으로 확장 (연1회 실시 정례화)
-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 이행 현황 공유 – 주주 목소리 청취 –
경영에 반영하는 쌍방향 질적 소통 선순환 체계 구축

선순환 원칙 확립 및 준수



지역금융의 한계를 기회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구조 위에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BNK로 도약

지역금융의 '한계'를
지역금융의 '기회'로

- ✓ 부울경 내 산업 사이클 변화 포착, 그룹 공동 영업체계로 대응
- ✓ 신규 수익원 확보로 수익구조 다각화

주주가치 극대화

- ✓ '29년까지 50%+로 확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체계 뒷받침

- ✓ 비용 구조 효율화
- ✓ 자본배분 원칙 확립 및 실행
- ✓ 전문성·독립성 갖춘 거버넌스로 실행력 확보

주주
환원율

50%+

ROE

10.5%+

CET1

12.5%+

BNK Value-up 2.0

전 사 적 Transformation

조 직

- ✓ 현재의 조직 형태를 고정하지 않고, 고객·산업 중심으로 운영 확대

문 화

- ✓ BNK 全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아는 것을 넘어 실행으로 증명

KPI

- ✓ 핵심 전략 과제별 담당자 지정, 명확한 과제 책임제 확립

보상체계

- ✓ 경영진 보상을 기업가치 제고 성과와 직접 연동, 주주와 경영진의 목표를 정렬

의사결정 체계

- ✓ 신속한 실행 체계 확립하기 위해 주요 의사결정 권한 지주로 집중

BNK Value-up 2.0 달성을 위한
전사적 혁신 추진

DISCLAIMER

본 자료는 Presentation에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주)BNK금융지주 (이하 "회사")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예측정보"는 개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보들입니다. 이는 과거가 아닌 미래의 사건과 관계된 사항으로 회사의 향후 예상되는 경영현황 및 재무실적을 의미하고, 표현상으로는 '예상', '전망', '계획', '기대', 'E' 등과 같은 단어를 포함합니다.

위 "예측정보"는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실제 미래 실적은 "예측정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중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전망은 Presentation 실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재 시장상황과 회사의 경영방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향후 시장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별도의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의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들은 과실 및 기타의 경우를 포함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문서는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 매매 및 청약을 위한 권유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문서의 그 어느 부분도 관련 계약 및 약정 또는 투자 결정을 위한 기초 또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내용 변경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단, 출처표시 필수),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이 변경된 자료의 무단 배포 및 복제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